단 신

'옥션 장애인 창업스쿨' 모집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함께 진행하는 '옥션 장애인 창업스쿨'('나의 왼발' 프로젝트)의 8기생을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나의 왼발' 홈페이지(www.left-foot.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총 25명이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3일 발표한다.

합격자들은 함평군 함평읍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다음달 23~8월10일까지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 061-320-7053.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청년들의 삶의 방향 워크숍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김영수 신부)은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7Habit 워크숍'을 연다.

7Habit은 ▲주도적이 돼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모색하라 ▲경청한 뒤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등.

워크숍에서는 이들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양을 기르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다음달 27~29일까지 2박3일 동안 광주시 남구 임암동 까리따스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3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은 7월18일까지. 문의 062-380-2273.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1주년 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세미나

한국실로암선교회 부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소장 김용목 목사)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상담소는 1주년을 기념해 최근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와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해 장애인가정폭력 예방세미나와 친교의 시간 등을 개최했다.

광주건강가정지원센터 최선령 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망의 집 만들기'를 주제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는 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피해자 상담과 치료, 부부상담, 일시보호소 연계, 장애인 자활교육 안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54-0420.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광주중흥교회 10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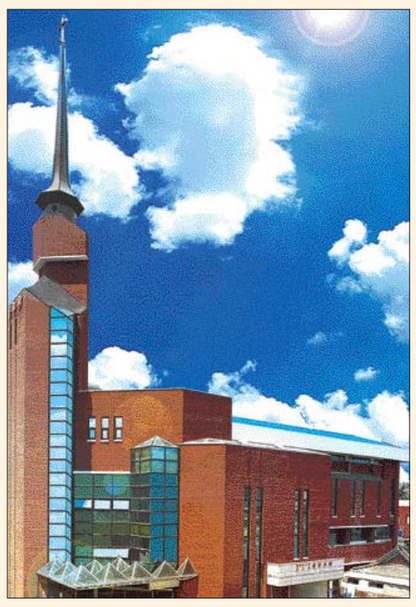
"지역 미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있는 교회 되도록 노력"

격동기 '광주의 산 역사'… 선교사 파송·청소년 교육 사업 추진

1907~1956년까지의 첫 예배당

1956~1971년까지의 예배당

1971~1992년까지의 예배당


1992~현재까지의 예배당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은 개신교 신자 몇몇은 광주의 서방(두암동 일대)에 교회를 세운다. 바로 올해 100주년을 맞은 중흥교회로, 시대의 격동기를 함께한 광주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선교사 배유지(유진 벨), 이방언, 서천년, 조능주, 김맹동씨 등이 설립한 중흥교회는 일제시대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현재 신자는 1천500여명. 이같은 영광 뒤에는 상처도 많았다. 최병준 장로는 3·1운동에 참가했다 붙잡혀 순교했고, 6·25전쟁 중에는 정태온 장로가 목숨을 잃었다.

1963년 유인식(79) 목사가 초대 위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중흥교회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유 목사는 "당시 서방면은 완전 촌이었는데, 전화 한 통을 하기 위해 시내(계림동)까지 걸어가야 했다. 익산의 북일교회에 있다 함께 청년회 등의 활동을 했던 김종민 장로의 부탁을 받고 중흥교회에 오게 됐다. 당시 53명이던 신자 수가 떠날 때(1978년) 700명을 육박할 정도로 부흥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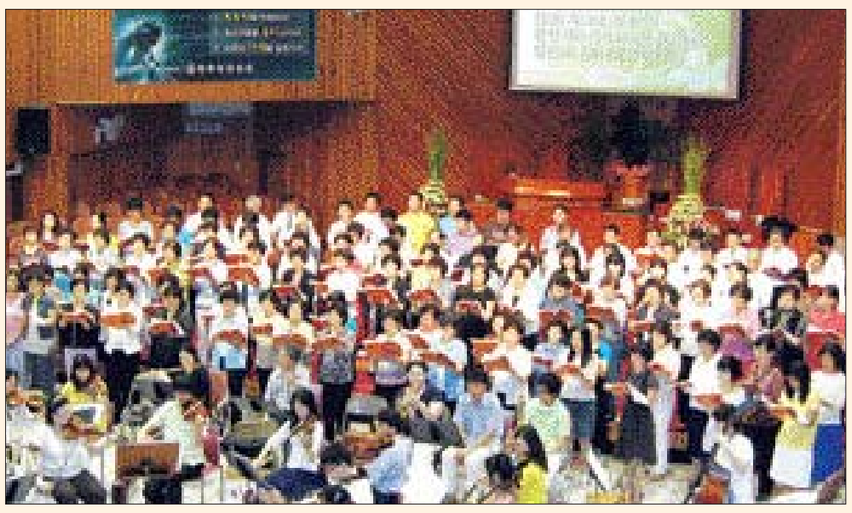
중흥교회는 1998년 지금의 김성원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세 확장 외에 국내·외 선교로도 눈을 돌렸다. 1999년 진도에 단기 선교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여수,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선교사를 꾸준히 파견하고 있다. 문대은(63) 장로는 "한국의 초기 교회는 대개 미국인 선교사의 주도로 이뤄지지만, 중흥교회의 경우 신자들의 자발적인 예배 소식을 들은 뒤 선교사가 합류해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100년 간 믿음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흥교회는 최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치렀고, 기념 예배도 가졌다. 오는 9월에 있을 '제4회 이웃 섬김을 위한 바자회'는 100주년을 기념해 더욱 크고 뜻깊은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장로는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이나 청소년 교육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흥교회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내다보는 취지로 다음달 8일 열리는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실무대표대회장 김삼환)에서 기념패를 수여받는다. 중흥교회와 함께 기념패를 받는 100년 이상 된 교회는 광주양림교회(1904년), 광주제일교회(1904년), 송정제일교회(1901년), 첨단영락교회(1905년) 등이 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14~15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 남산현감리교회 등 평양 일대로 퍼졌다. 부흥의 물결은 교파를 초월해 평양을 넘어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당시를 경험한 외국인 선교사들 조차도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며 평양대부흥운동을 추켜세우는 등 한국교회사에 깊이 각인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흥교회 신자들이 100주년 음악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는 모습. 〈중흥교회 제공〉

종교칼럼

최도응

지금은 영업 준비 중

병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아직 진료를 시작하지 않은 터라, 병원 가까이 있는 상점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후에는 그토록 많은 인파가 다니던 이 길이, 이른 아침에는 인적이 끊긴 숙면의 도심이었다.

그 가운데 몇 몇 상점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고, 몸놀림 또한 바쁘게 보였다. 이 상점들은 정문에 '지금은 영업 준비 중입니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다. 아직 사람의 발길은 없어 고요하나, 앞으로 맞이할 손님을 위해,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 일뿐이랴!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머물렀다. 엄마 뒤를 따라가는 어린 아이의 아장 걸음은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이며, 서점에서 책을 골라 읽어 내려가는 학생의 눈길이 또한 그러하다.

영업을 앞두고 상점 앞을 청소하는 아저씨 빗질에도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고 있음이다. 그 뿐 아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대선후보들의 활동에도 역시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공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공의 결과를 얻은 사람들도 오히려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요즘 자주 보게 된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 모두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이 진실성과 도덕성이 아닌가 싶다.

소태산 대종사는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곤궁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의 공정성과 진실성이 요구된다. 매 순간 품고 있는 희망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즐겁고 밝은 세상을 준비하는지를 물어야 할 일이다.

어느덧 가게문이 하나 둘 열리고 바쁜 손들이 분주해지며 병원문도 열린다. 또 하루의 희망이 시작된다. 〈원불교 광주교구 교무〉

대원정사 대웅전 새단장

내년 5월까지 완공… 수행센터·어린이집도 건립

지난 8일 화재로 대웅전을 잃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주지 일화 스님)가 대웅전 복원과 함께 복지시설 등을 지어 새롭게 태어난다.

일화 스님은 "전소된 대웅전은 내년 초파일 전에 완공을 하도록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수행센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물을 지어 신자와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1년 창건된 대원정사는 특히 새벽 예불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사찰로 유명하다. 직장인이나 어린이를 위해 일요법회를 활성화하고 교양대학이나 신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포교에 힘써왔다.

대원정사가 계획 중인 수행종합센터는 현대식 복지시설로 운영된다. 센터 내에는 대형 법당이 들어서 수행 공간을 확보하고, 무의탁 노인이나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찜질방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일화 스님은 "대웅전이 불타버린 일은 불자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정진해 지역민과 신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